

지역 소식통

완주군, 생애주기별

인구 종합정책 시행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 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에서 출산 주거,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정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혼 축하금(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을 위한 출산 장려금(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도비 매칭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3자녀 이상 가구 가족을 차량(패밀리카) 지원 사업은 이미 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심사를 거쳐 최대 25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음식문화

개선 실천 희망 업소 모집

김제시보건소는 낭비 없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과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실천 업소'를 오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20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위생적인 식문화 실천을 위한 포장용기, 포장봉투, 개인위생장기 등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홍보물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업소는 적정량 제공, 남은 음식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을 준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63-540-13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래산업 5년 로드맵 마련 본격화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8일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김제시 미래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시청 2층 상화실에서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이승인 정책기획단장,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 권연 국·소·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김제시가 집중해야 할 전략산업과 실행과제 발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김제시 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김제시가 기존에 중점 추진해 온 특장차, 농생명, 건설기계 등 산

업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새롭게 보완이 필요한 분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환경과 기술 트렌드, 중앙정부 및

전북도 정책 방향, 김제시 산업 여건과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지컬 AI, 자율주행,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전략산업 후보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비전과 목표, 연차별 실행과제, 재원 확보 방안, 추진체계 등을 담은 실행 중심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산업 현황 분석, 전략산업 후보군 검토, 실행과제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기센터,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용지면 고추재배 농가 찾아... 지주대 설치 적기 영농지원

김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중에 있다.

지난 7일 추진한 일손돕기는 농번기 인력 수요 불일치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정금미과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이 참여해 김제시 용지면 소재 고추재배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직원들은 약 1600㎡ 규모의 고추 재배포장에서 지주대 설치 및 줄매기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작물 생육 안정과 병해 예방을 위한 기초 작업을 도왔다. 고추 재배에 있어 지주대 설치의 쓰러짐 방지와 통풍 개선, 병해충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기에 작업이 이뤄져야 품질과 수확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농가는 소규모 여성농업인 농가로, 작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지원이 적기 영농추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작업 요령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용지면 서정숙 농가주는 "지주대 설치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도와주니 큰 힘이 되었다"며 "김제시의 농촌현장 일손지원이 매우 든든하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금미 과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은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와 연계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13일 선대위 발대식 개최

임상규·박재완·김정호·두세훈 공동선대위원장 참여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오는 13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유 예비후보 측은 선거조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선대위는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안정감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재완 전북도의회 의원, 김정호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며 선대위 무게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윤수봉, 권요안, 소병호, 이진영, 정준용, 유이수, 최광호, 성중기, 삼부건, 김규성, 김상식, 이미경, 최은규 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3명과 신승기, 이완근, 이선재, 이찬영 전 후보들도 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하면서 '원팀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조직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정책과 조직, 현장 대응 체계를 모두 갖춘 실천형 선대위 완성을 의미한다"며 "완주 발전 비전을 주민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만경강 수변공간 권역별 통합 개발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읍면별 균형발전 공약 등

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산재·붕동·용진·고산 권역을 중심으로 산병복합문화센터, 어린이공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과 생태식물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 만경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이서체육공원·구이체육공원·상관저수지 조성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소양복합체육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동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초동 방과후 365 돌봄체계 구축, 스마트 경로당 확대, 완주형 통합돌봄 정책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하나 된 힘으로 완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준비된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워크온 12만 보 걷기... 챌린지 매션 인증시 혜택 '팡팡'

완주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 걷는 완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며, 워크온 완주군 커뮤니티 가입

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자는 기간 내 누적 12만 보를 달성하면 기본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

단순 걸음 수 달성뿐 아니라 주민 참여형 건강 미션을 함께 운영해 재미를 더했다. 참여 미션은 △누적 12만 보 달성 △함께 걷기 인증(가족·지인

과 함께 걷기 또는 완주 명소 인증) △건강생활 실천 인증(하루 30분 걷기, 물 6잔 마시기, 저염·건강식 실천 등)으로 구성했다.

2가지 미션을 달성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3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상향된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2회차 실시

집배원과 협력... 고립위기 가구 간편식품 전달·안부확인 등

김제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김제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김제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지난달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집중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와 우체국의 행정망을 통합한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대상 가구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안부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편물에는 정서적 위로를 담긴 안내문과 김제시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 혜택 정보가 담겨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간편식품도 함께 전달된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위기징후가 포착될 경우 시정 주민복지과로 통보하며 시는 읍면동과 연계해 초기상담을 실시해 긴급 위기상황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며 중



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편서비스를 통한 작은 관심이 고립된 이웃에게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